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얼음 깨기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1_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 2_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은 _____ 에 있습니다.
- 3_ 일주일의 온전한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교회행사

3월

- 5일 상반기 양육훈련 시작
부부 사랑학교 시작
- 11일 어와나 입단식
- 26일 성례식

4월

- 2일 종려주일/성찬식
- 3-8일 고말기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 9일 부활 주일

경배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선교지

[김용기 선교사]

필리핀

1. 그레이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1:1 결연을 통해서 영적인 양부모들이 맺어져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2. 좋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3. 선교예수 마을 공동체가 완공되어 필리핀 땅이 선교센터가 되도록
4. 여호수아 훈련생들에게 ‘어?성경!’ 강의를 통하여 말씀이 일하시도록

소식

1.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회

4월 3일~ 4월 7일 저녁 7:30~9:00까지 “우리 더 가까이_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의 주제로 말씀 강행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2. 교사 모집

다음 세대들이 물밑듯이 몰려오는데 양육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돌봄과 사랑 안에 세워져가도록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 결혼 예비학교

하나님 나라 가정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에 결혼예비 커플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 : 5/13-6/10 (5/27 휴강) 시간 : 14:00 - 19:00

한문장 큰 울림

세상에는 여러가지 책들이 많지만
우리의 침례하는 영성을 만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 D.L 무디 -
(19세기 복음 전도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 하)

같은 말을 듣더라도, 어떤 때는 참 고맙게,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이 느끼게 될까요? 이는 아마도,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뛰하고 지냈어?" 라고 가족 간에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진심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에는 이보다 따뜻한 말이 없지만, 반대로 갈등의 상황이라면 이보다 차가운 말도 없겠지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 했던 질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수 집단으로 로마 당국과 충돌하는 입장이었고, 헤롯당원은 헤롯 왕가 일파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온전한 한 마음으로 나아와 질문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죽이기 위한 야합과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척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살인의 칼날'을 숨겨두고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갑자기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각적으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복을 급진적으로 꿈꾸던 이들은 동전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동전은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즉시 가져 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아무도 다시 반문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1_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까?'가 진정으로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울무를 걸어, 주님을 붙잡기 위함**이 그들의 의도였지요.

- 옳다 : 유대 민족들에게 원성과 원망을 듣게 됨
- 옳지 않다 : 로마 반역 죄로, 정치범으로 엮을 수 있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논리적으로 볼 때에, 이 두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절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18절) 라고 반문하십니다.

[질문]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인 삶의 상황 한가지를 생각해보며 나누어봅시다.

2_ '너는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데나리온 일상적인 로마 은전
앞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뒷면 평화의 여신 황후 리비아

이 작은 동전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고, 로마의 신인 황제가 평화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너희 주인은 하나님임을 말미 아닌 삶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질문]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도전되는 상황들은 무엇인가요?

3_ 하나님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의 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질문] 지난 주 말씀을 듣고, 삶에 외닿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나눔] 우리 목적은 어떻게 목상을 함께할지 나누어봅시다.

마음을 보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내 삶은 주의 것
행상과 글	하나님의 글(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